

News

신용대출 늘어난다 지적에...금융위, 은행에 '구두 경고'

한국경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식·주택 매매에 활용된 신용대출은 향후 시장 불안 시 금융회사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금융회사 차원에서 각별한 관리가 필요..."
"과도한 신용대출이 주택시장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재 DSR 비율 준수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지켜달라"...가계 부채 전반에 걸쳐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

가계빚 또 '역대최대'...대출 2년반來 최대 ↑, '빚투'도 사상최대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2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천637조3천억원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래 가장 많아...
특히 2분기에만 주택담보대출이 15조원 가까이 급증했고, 돈까지 빌려 주식을 사는 이른바 '빚투' 열풍에 증권사의 신용공여액은 2분기에 7조9천억원이나 늘어

손병두 "코로나19 대출만기연장 가급적 8월 내 확정"

파이낸셜뉴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등 한시조치 연장 여부를 가급적 8월 내 확정·발표하겠다"
코로나19에 자연재해 피해가 가중된 만큼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강조..."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고, 실물경제의 회복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

"아직 갈 길 멀다"...4대 은행 글로벌화 구호만 요란

데일리안

4대 시중은행의 작년 말 평균 TNI는 11.58%로 집계...이는 6개월 전(11.0%) 대비 0.58%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쳐...주요 글로벌 은행들의 TNI가 60~75% 수준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이 가장 높아...포화상태인 국내 영업경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은행들의 글로벌 진출을 더욱 탄력이 붙을 것

장마 가니 폭염... 보험사 "손해율 관리 어쩌나"

조선비즈

올해도 역시 장마철을 지나면서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대형 손보사 4개사의 지난달 손해율은 전월 대비 약 1%P가량 오른 84.8~86.5%로 잠정 집계
올해는 긴 장마 뒤에 폭염이 찾아오면서 이에 대한 피해도 우려...덥고 습한 날씨로 불쾌지수가 증가할 때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삼성생명 이 버린 공동재보험...IFRS17 대비책 흥행 '적신호'

뉴스웨이

유호석 삼성생명 부사장, "재보험을 통해 역마진을 헤치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있으나 헤치 가능 여부를 떠나서 부가되는 비용이 과다해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공동재보험 도입 방안을 처음 발표...그러나 삼성생명이 공동재보험을 사실상 외면하면서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다른 대형 보험사들도 활용하지 않을 가능성

국내보다 10배 비싼 수수료...증권사, 해외주식 열풍에 함박웃음

조선비즈

국내주식 매매 수수료보다 해외 주식 매매 수수료가 높게 책정돼 있어 쓸쓸한 수입원으로 자리매김...반기 외화증권 결제금액은 약 169조1,47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
소수의 증권사만 해외 주식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보니 수수료 인하 경쟁이 아직 국내 주식 수수료 인하 경쟁보다 치열하지 않아...57개 증권사 중 18곳 만 서비스 제공

'모바일' 토스증권, 내달 본인이 신청...애널 채용 등 막바지 준비

파이낸셜뉴스

비바리퍼블리카가 다음달 금융당국에 토스증권 본인가를 신청... 토스 관계자, "현재 인적·물적 요건을 마무리 점검 중...9월 중에 금융당국에 본인가를 신청할 예정"
박재민 토스준비법인 대표가 토스증권의 대표를 맡을 예정...먼저 국내주식 중개 서비스를 선보인 후 해외주식 중개, 집합투자증권(펀드) 판매로 서비스를 넓힐 계획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